

확진·사망자 감소 추세에도... 오미크론은 갈수록 '확산'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

지난주 日 평균 1077명 확진
2주전 대비 평균 455.3명 ↓
오미크론은 2주전 대비 2.5배
백신 3차접종 동참 당부

서울시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효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검출자가 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3차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실시, 3차 접종 효과로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가 줄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코로나19주간동향자료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시스

에 따르면 지난주(1월 2~8일) 관내 확진자수는 총 7544명으로 하루 평균 1077.7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2주전(작년 12월 26일~올해 1월 1일) 일평균 확진자수인 1533.0명과 비교하면 455.3명이 감소한 수치다.

해당 기간 하루 신규 코로나 환자수 뿐만 아니라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 재생산수, 사망자수가 모두 줄어 방역에

숨통이 트였다. 감염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2주전 전체의 12.8%에서 지난주 10.9%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감염 재생산수(한 명의 확진자가 새로운 감염자를 몇 명 만들어 내는지 나타내는 수치)는 0.79에서 0.74로, 사망자수는 158명에서 116명으로 감소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박유미 방역 통제관은 "서울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작년 12월 14일 3165명까지 치솟았던 게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다"면서 "중증 환자 병상가동률이 떨어졌고 여러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세와 18세 이하 백신 접종률이 낮고 12세 이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등 어려운 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완화 시점은 정부가 타 시·도,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 언제라고 말할 수 없으나 현재 방역 상황과 시민의 민생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인 서울시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검출자가 2주전 183명(2일 24시 기준)에서 전주(9일 24시 기준) 456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사망자는 약 26.6% 줄었으나 치명률은 1.5%로 동일하게 유지됐고, 9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563명)가 당일 확진자(964명)의 절반 이상(58.4%)을 웃돈 점도 방역에 고삐를 죄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방역통제관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전 시민은 3차 접종을 받아달라"며 "특히 18~49세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시민들은 서둘러 백신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10일 0시 기준 시에서는 약 940만 명 거주 인구수 대비 87.4%(821만6392명)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800만8287명(85.2%)이었고, 3차 접종까지 끝낸 이는 383만7808명(40.8%)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보급규모 전년보다 2배 ↑
저소득층 60만원 등 지원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급 규모는 전년(6만1000대)과 비교해 약 2배가 늘어난 11만5000대로, 시는 보조금 지원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대당 1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급 물량을 갑절로 늘려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고,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간 도시가스비로 100만원을 지출하는 가

정인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약 13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만 내면 저소득층 임차인도 6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소외 계층을 먼저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 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 10년 넘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을 포함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교체(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먼저 지원) 등이다.

신청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를 포함한 명판사진)를 첨부해야 한다. 또, 신청서에 올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 기사 날짜 등을 사진에 함께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 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다음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현재 5개사 468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21종, 대성셀틱에너지스 36종, 린나이코리아 19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김현정 기자

'쓰레기 다이어트' 해보니 배출량 '뚝'

서울시, 164가구 참여
석달동안 40.8% 감소

서울시는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인 '쓰레기 다이어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약 41% 가까이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쓰레기 다이어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 계획을 세워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다.

우선 시는 참여 가구에 저울, 분리배출함, 활동 노트를 지원해 평상시 생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종이·비닐·플라스틱·스티로폼)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했다. 이후 시는 가구별 쓰레기 배출 현황을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가 쓰레기를 줄이는 법,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쓰레기 감량 실천 사례(천주머니로 장보기). /서울시

시가 작년 9~11월 쓰레기 다이어트에 동참한 164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참여 가구 1인당 평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종전 5.81kg에서 3.44kg으로 4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민이 뽑은 뉴스 1위는 '특례시 승격'

민선 7기 '10대뉴스' 선정

고양시는 민선7기 동안 추진된 정책과 이슈 중에서 고양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100만 대도시 고양특례시 지정'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2위에는 '11개 철도노선 반영 및 추진', 3위는 '안심시리즈 코로나 19 대응'이 선정되어 시민의 관심을 반영했다. 그 결과 고양시민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는 '100만 고양특례시 지정'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양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적 특례와 사무를 부여받을 수 있어 자율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복지혜택 등 시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 일산테크노밸리, CJ라

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IP 융복합 콘텐츠 등 자족경제도시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최종입지 선정 후 국제설계공모를 확정하여 2025년 준공예정인 신청사 부지선정 및 건립 ▲ 차별·소외없는 노동 존중도시를 위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조례, 배달종사자 안전 조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도 순위에 올랐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약 천 여명이 참여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월 11일 (화) 음력: 12월 9일

수도권 날씨 -9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07:47 | 해질: 17:33

지역별 날씨: 연천 -12/-4, 동두천 -12/-3, 가평 -12/-3, 파주 -12/-5, 서울 -9/-4, 양평 -8/-3, 인천 -9/-5, 수원 -8/-4, 용인 -8/-4, 평택 -9/-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미국서 금주부터 일부 면역 저하자 대상 4차 백신 접종
▲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재산 115조... 세계 11위" /사진 뉴스시스

▲ 영국 오미크론 격리 급증에 1~2월 최대 57조 손실
▲ 미국 주택업계, 공급난에 차고 문·흙통 없는 집 판매



▲ 전문가들 "델타크론, 실험실 분석 과정 오염일 수도"
▲ 태국 관광수입 우려에 '제한적 무격리 입국' 3곳 추가 /사진 뉴스시스